



일본정부, 세계적 반도체업체 생산개발거점의 일본유치 계획 수립

미·중 마찰의 격화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세계 각국이 자국제일주의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서플라이체인 의존의 높은 의존도가 초래할 위험성을 경계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전략적이거나 필수적인 품목의 조달선 다변화와 자국내 생산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최첨단 반도체 양산공장 건설을 발표한 것도, 미국의 자국내 생산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반도체 재료·장비업체의 자국내 회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극비로 세계 유수의 반도체 메이커의 생산 및 개발거점의 일본내 유치를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최우선 유치 대상은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TSMC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외자유치에도 있으나 일본 반도체 재료·장비업체의 자국내 회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경산성은 작년 가을부터 반도체 서플라이체인의 규명에서 일본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들을 선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강한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 완성품 업체를 그다지 보유하지 못한 대신, 막강한 경쟁력을 지닌 소재·장비업체가 한국, 중국, 대만 반도체업체 등에 납품을 추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경쟁력이 강한 일본 반도체 소재 및 장비업체의 해외진출 러시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경산성은 자국내 반도체 기술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포스트5G 정보통신시스템 기반강화 개발사업 2019회계연도 예산 1,100억엔에도 로직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 개발이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으로서는 미국에 양산공장 건설을 발표한 TSMC를 일본에도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내심 가장 원하는 것은 일본 재료·장비 메이커가 보유한 첨단 기술의 자국내 유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산공장보다는 연구개발거점을 일본내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술한 경산성의 외국 반도체업체의 일본유치 계획의 또 다른 목표는 중국에 대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미국과 대만 등과 함께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이 제조업 2025를 추진하면서 반도체 기술자립을 위해 일본의 관련 기업을 매수합병할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매물로 나올 일본의 우량 중소·벤처 기업이나 니치기업 등에 대한 중국의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료: 「週刊ダイヤモンド」, 2020.5.30.

사공 목 | 연구위원 · 동북아산업실 skmok@kiet.re.kr